

평창올림픽 안전대책 추진 격려 및 감사 인사

존경하는 강원소방 가족 여러분!

지난 201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소방안전대책이 3월 18일 패럴림픽 폐회식에 이어 21일 평창 선수촌과 미디어 레지던스의 폐촌식을 끝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역대 최고의 올림픽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올림픽 안전과 지역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낸 강원소방 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에 높은 존경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올림픽 개최지 관서인 평창·강릉·정선은 물론 춘천 등 비개최지 관서, 특수구조단·환동해대응단·종합상황실·올림픽 상황관제센터·올림픽안전기획단·소방지휘본부 등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 그리고 올림픽조직위와 올림픽운영국에 파견근무를 통해 각 분야별 임무를 빈틈없이 추진하였기에 이루어낸 눈부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제방송센터(IBC) 등 주요 시설의 안전매니저로 활동해 주신 백승렬 전 서장님 등 퇴직 선배님들의 역할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올림픽 지원을 위한 응원 써포터즈 참여 등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도의용소방대연합회를 비롯한 평창·강릉·정선지역 의용소방대 등 도내 전 시·군 의용소방대 9천여 대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강원소방인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올림픽 안전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냄으로써 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소방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랑스러운 강원소방 가족 여러분!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전인해 온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님,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과 조종묵 소방청장님,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김동일 도의회 의장님께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희범 올림픽 조직위원장님은 올림픽 폐회식에 이어 패럴림픽 폐회식 연설에서도 감사의 뜻을 표명하셨고, IOC 및 IPC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감사의 뜻을 전해 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여러분들의 열정 가득한 의지와 강인한 모습, 그리고 올림픽 기간중 아름다운 미담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소방의 밝은 미래와 발전상을 보게 되어 무엇보다 기쁨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올림픽 안전을 이끌어 온 소방안전기획단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소방본부장 이흥교 드림.